

西日本 최대 환경 전시회, 에코테크노 2010

서일본 환경 관련 최대 규모 전시회, 에코테크노

지난 10월 13일 서일본 최대 환경 관련 전시회가 기타큐슈에서 열렸다. 기타큐슈시와 서일본 산업 무역 컨벤션 협회가 주최하는 환경 기술 및 제품 전시회인 “에코테크노 2010”이 그것이다. 올 해로 15번째를 맞는 전시회로, 환경 전시회로서는 꽤 역사가 깊다. 그 명성에 걸맞게 개장 전부터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었다.

1901년부터 가동된 야하타 제철소를 중심으로 일본의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기타큐슈. 그 부작용으로 1960년대에는 일본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 기타큐슈는 공해 극복을 위해 시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타큐슈에서 서일본 최대 규모의 환경 관련 전시회가 탄생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 도시 기타큐슈에서 열리는 에코테크노는 단순히 환경 기술 및 제품만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환경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회에도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들 약 230개가 참가해 자신들의 기술 및 아이디어 상품, 그리고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 등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태양광발전, 석탄 등 화석연료 고도화이용, 중국 산동성 환경 비즈니스, 식물공장 등을 주제로 20여 개의 세미나가 열렸다. 전시회장 앞에서는 기타큐슈의 다양한 환경 보호 관련 시설을 탐방할 수 있는 버스가 연일 출발했으며, 참가자 대상 환경 퀴즈 대회, 규슈환경비즈니스 시상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중국, 한국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국과 규슈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규슈 경제 교류회의가 동시에 개최되어 기타큐슈시에 한, 중, 일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도 되었다.

에코테크노 2010 입구 및 개회식



출처 : 후쿠오카KBC

식물 공장 전문 섹션에 인파 몰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참관객이 몰렸던 곳은 작년에 이어 식물 공장 섹션이었다. 올해 폭서가 계속되어 야채 값이 급등했던 탓인지 기후나 계절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야채를 생산할 수 있는 식물 공장에 연일 참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실내 재배 관련 기업의 출전 부스에도 사람들로 연일 북적였다. 규슈 내외에서 참가한 10여개의 식물 공장 관련 회사는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올 해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가정이나 레스토랑에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도록 소형화된 시스템이었다. 소형 냉장고만한 크기의 재배 시스템까지 선보여 참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던 탓에 일본에서도 야채 값이 폭등한 것이나 위생 문제 등으로 자택에서 야채를 재배하려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식물 공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의 저가격화 등이 이루어지면 향후 거대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에코테크노 2010의 식물공장 섹션



출처 : 후쿠오카 KBC

중-일간 환경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의 기회로

일본 정부는 에코테크노 2010을 통해 중-일간 환경 비즈니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와 함께 개최되었던 환경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주최하였던 규슈 경제 산업국의 타키모토 국장은 서일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먼저 환경 비즈니스의 구축에 있다.”고 하였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도 중국 산둥성 청도시 환경 비즈니스 세미나 등이 열렸으며, 일본의 JETRO가 유치한 해외 기업 섹션에서도 중국 기업이 단연 많았다.

중국 대련시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 기기 메이커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목적에 대해 “일본의 환경 기술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일본 파트너 기업을 찾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했다. 중국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서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환경 산업 선점을 위해 에코테크노를 일본 기업의 선진 기술 선전, 중국 기업과의 매치메이킹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타키모토 국장은 “일본은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 시장에 밝은 중국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면 양국 기업이 윈윈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해를 극복한 기타큐슈시의 노하우를 중국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은 일본에 뒤지지만 일본의 기술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고 중국 사업 전개는 일본 기업보다 월등히 낫다고 평가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냈다.

JETRO가 유치한 해외기업 섹션



출처 : 후쿠오카 KBC

일본은 수년 전부터 중국의 거대한 환경 시장을 겨냥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에코테크노 전시장 곳곳에서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적인 환경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기타큐슈, 그 기타큐슈가 주최한 환경 축제 에코테크노. 일본 정부는 이 축제를 일본 환경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K](#)

전시회 개요

명칭	에코테크노2010(지구환경 · 신에너지 기술전 & 세미나)
취지	지구 환경 시대에 어울리는 환경 보전, 에너지 기술을 소개해 환경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업계의 기술 혁신, 설비 개선을 도모해 지역산업계의 환경 의식 고양과 환경 비즈니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교류의 장으로 환경 기술 및 제품 보급 등 국제화의 진전에 이바지한다.
테마	에코 이노베이션 - 지속가능한 사회의 도래
주최	기타큐슈시, (재)서일본 산업 무역 컨벤션 협회
공동개최	일본 산업기계 공업회, (재)지구환경 산업기술 연구기구, (재)기타큐슈 국제 기술 협력 협회, 규슈지역 환경 리사이클 산업 교류 플라자, (재) 클린재팬센터,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후원	국토교통성, 환경성, 경제 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 환경재생보전기구, 신에너지 재단, 에너지 절약 센터, 국제협력기구, 규슈 국제센터, JETRO 등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에코테크노 2010
- 기간 : 2010년 10월 13일(수)~15일(금)
- 장소 : 서일본 종합 전시장(기타큐슈시)
- 전시규모 : 약 7000㎡
- 참가기업 : 230개사(중국, 한국 기업 50개사 포함)
- 입장객수 : 29,859명